

## HEADLINE NEWS

###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계획 추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시는 자가용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반 시민의 교통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통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계획이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촉진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TransLink’와 ‘Transport Canad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TravelSmart」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에는 총 900,000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특화된 대중교통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TravelSmart」 프로그램은 호주의 퍼스(Perth)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Portland)시 등에서도 이미 시행되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www.canada.com/search/story.aspx?id=d60dc2f2-7603-4856-91eb-c1f002f0e19a](http://www.canada.com/search/story.aspx?id=d60dc2f2-7603-4856-91eb-c1f002f0e19a))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한 지역 활성화 전략 추진 (시애틀)

### 도시환경

- ② 202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Zero’ 추진 (멜버른)
- ③ 폐기물 집하장에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 추진 (L.A.)

### 도시교통

- ④ 통행시간 단축 위해 유료 다인승 전용차로 설치 추진 (워싱턴 D.C.)
- ⑤ 버스의 원활한 통행 위해 버스교통 개선사업 추진 밴쿠버
- ⑥ 교통체증 해소 위해 우회로 신설하고 이용차량에 통행료 부과 (런던)
- ⑦ 이용자 안전 위해 야간버스에 CCTV 장착 (런던)
- ⑧ 지하철 서비스 향상 위해 승무원 재교육 실시 (런던)
- ⑨ 교통혼잡 완화 위해 도심 진입용 트램 건설 추진 런던
- ⑩ 도심부 지하도 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하도 지도 작성 추진 (몬트리올)

### 사회복지·문화

- ⑪ 동절기 노숙자 쉼터 운영 (샌디에이고)
- ⑫ 로봇 기술을 응용한 장애인 ·고령자용 복지기기 연구 개발 지원 (동경)

### 행·재정

- ⑬ 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 (미시건주: 렌싱시)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 세계도시동향 ■

### 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한 지역 활성화 전략 추진 (시애틀)

최근 미국 시애틀市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매년 지방세의 추가 수입 증대 효과를 낳는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테크산업 유치, 수변공원 조성, 지역사회의 문화시설 개선, 도심 연결 전동차 설치, 도시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건축물 건설 등이다.

최근 보고된 「지역 활성화 전략」에 의한 잠재적인 경제효과로는 우선 2025년까지 32,000~3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꿈꿀 수 있다. 간접 효과를 포함하면 총 56,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는 Microsoft社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20년 동안 추가적으로 247,000,000달러의 누적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되어, 매년 16,000,000달러의 세입 증대가 기대된다. 市는 이와 같은 직·간접 효과를 통해 市를 활기찬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3951](http://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3951))

### ② 202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Zero’ 추진 (멜버른)

최근 호주 멜버른市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市는 작년에만 2,5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성공했는데, 이는 공공청사, 시청, 대형건물에서의 녹색에너지 전환 20%, 가로등의 녹색에너지 이용 30% 등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다. 市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유류 소비 감소, 자동차 연비 향상, 소형차 운행 촉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市는 지구온난화와 관련, 「202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화(零化)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향후 17년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동결하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市, 기업, 산업,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99~200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20만톤 감축한 바 있는데, 이는 1년간 4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된다.

([www.melbourne.vic.gov.au/upload/GasEmissionsTarget.pdf](http://www.melbourne.vic.gov.au/upload/GasEmissionsTarget.pdf))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 세계도시동향 ■

### ③ 폐기물 집하장에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 추진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연료 자동차의 운행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집하장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 프로젝트」는 市의 LNG 및 CNG 충전소 보급·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100대의 중량 쓰레기 수거차량이 1년간 수거지역을 운행하면서 소비하는 35만 갤런의 경유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새로운 대체연료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약 50%를 배출하여 1년 기준으로 약 8.6톤의 배출량 감소 편익을 낳게 된다. 대체연료 충전소는 1일 100대의 청소차를 주유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市 부서의 차량에도 향후 활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5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www.lacity.org/EAD/EADWeb-Newsletters/2004Jan.pdf](http://www.lacity.org/EAD/EADWeb-Newsletters/2004Jan.pdf))

### ④ 통행시간 단축 위해 유료 다인승 전용차로 설치 추진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지역의 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유료로 운영되는 다인승 전용차로(High Occupancy Toll)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 차로는 기존의 다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 운행을 허용하나, 나홀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요금을 지불할 경우에 한해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州교통부는 이 유료 다인승 전용차로 도입을 위해 주요 노선축에 대해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다인승 전용차로 외에 추가로 차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 및 운영비는 나홀로 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유료 다인승 전용차로 설치에 대해 일반 시민 및 여론은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민간 건설업체도 이 프로젝트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www.itsva.org/downloads/files/ITSVA-4thQtr-NL-2003.pdf](http://www.itsva.org/downloads/files/ITSVA-4thQtr-NL-2003.pdf))

### 5] 버스의 원활한 통행 위해 버스교통 개선사업 추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시는 앞으로 버스 통행량이 많은 가로는 버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버스 중심가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일 3만명의 버스 승객이 이용하는 8.2km의 Main Street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3년간 6,400,000 달러 규모의 버스교통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버스 정류장의 기하구조를 개선하여, 앞서 정차해 있는 버스 때문에 승하차가 완료된 뒷차의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정체구간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버스통행속도 저하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는 위의 시설물 개선사업 외에도 버스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신호로 인한 지체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교통정체로 인해 버스 도착시간이 불규칙했고, 특히 오후 첨두시간에는 운행중인 버스의 83%가 버스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게 운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www.canada.com/vancouver/story.asp?id=DF796D41-FF33-4264-9110-BA267711A071](http://www.canada.com/vancouver/story.asp?id=DF796D41-FF33-4264-9110-BA267711A071))

### 6] 교통체증 해소 위해 우회로 신설하고 이용차량에 통행료 부과 (런던)

앞으로 영국 런던시 운전자들은 신설된 M6 우회로 이용을 위해 통행료 2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이 도로를 운용하는 'Midland Expressway Ltd(MEL)'은 27마일에 이르는 이 도로 건설에 9백만파운드가 소요되었는데, 이로 인해 미들랜드 서부지역 버밍엄 북부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MEL은 2파운드의 통행료는 커피 1잔 가격 정도로 부담이 적으므로 5월부터 일반 차량은 2파운드, 밴은 5파운드, 트럭은 10파운드의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M6 도로는 하루 180,000대 가량이 이용하고 있는데, 새 도로는 72,000대를 소화할 수 있다. M6 우회로를 이용하면 운전자들은 평소 소요 시간의 약 45분 가량을 단축할 수 있다.

(The Times, 2003. 12. 10)

### 7 이용자 안전 위해 야간버스에 CCTV 장착 (런던)

영국 런던市에는 모두 97개의 야간버스(nightbus) 노선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인 N29는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에서 엔필드(Enfield) 사이를 운행하는 것으로, 작년에만 승객을 1백만명이나 수송했다. 현재 市는 야간버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버스에는 모두 CCTV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市는 2005년까지 7,500개의 모든 야간버스에 CCTV를 장착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市의 꾸준한 투자로 지난 2년 사이 총 28개의 신규 노선이 증설되었고, 승객 또한 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실시된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신뢰성, 혼잡도, 청결함 등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Metro, 2003. 12. 1)

### 8 지하철 서비스 향상 위해 승무원 재교육 실시 (런던)

현재 영국 런던 지하철의 승무원들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NVQ 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 'NVQ 교육과정'은 전동차 운전, 신호 조작, 역사 관리, 티켓판매 업무 등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을 경우 'City & Guild' 자격증이 수여된다. 지금까지 1천명 이상의 승무원이 이 과정을 이수했고, 현재 5,500여명이 신규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교육이 종료될 무렵에는 약 7,000여명의 훈련된 승무원들이 고객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3년 전 고작 24명만이 'NVQ'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Metro, 2003. 12. 2)

### 9 교통혼잡 완화 위해 도심 진입용 트램 건설 추진 (런던)

최근 영국 런던市는 서부측을 가로질러 도심으로 진입하는 트램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Transport for London’은 2011년에 이 트램이 완공되면 연간 약 5천 만명의 통근자가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교통혼잡 완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안된 노선안은 Uxbridge Road~the centres of Hayes~Southall~Hanwell~West Ealing~Ealing~Acton~Shepherd’s Bush의 20km 구간을 3~6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예상 정거장 수는 45개이다.



이용되는 전동차는 ‘웸블던~크로이든’ 트램 구간과 마찬가지로 전기동력의 두량연결 차가 유력하며, 이 경우 한번에 300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주민들은 트램이 안전하고 빠르게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재개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etro, 2003. 12. 10)

### 도심부 지하도 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하도 지도 작성 추진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市는 최근 도심부 지하도 내부안내 표지판 개선 및 지하도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지하도 지도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RESO」라는 이 프로그램은 지하철 10개 역, 2개의 버스 터미널과 2개소의 통근열차 정차역을 관통하는 30km에 이르는 지하보도 및 이와 인접해 있는 주요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 지하도를 통해 1만 대의 주차장, 2,600개의 소매점, 1,615개의 주택, 200개의 음식점, 37개의 영화관/전시장 및 3개 대학에 접근할 수 있다. 市는 이번 프로그램이 3,600,000m<sup>3</sup>에 이르는 거대한 지하공간의 이용 편의 증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표지판의 경우 향후 그림문자 안내판으로 대체하여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www.canada.com/montreal/news/story.asp?id=1A2532DA-EB61-4F19-B6F3-03915BFD55A5](http://www.canada.com/montreal/news/story.asp?id=1A2532DA-EB61-4F19-B6F3-03915BFD55A5))

### 동절기 노숙자 쉼터 운영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市는 2003년 12월 중순부터 2003~2004 동절기 노숙자 쉼터 운영을 시작했다. 노숙자 쉼터는 독신 성인, 가족, 퇴역군인 홈리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총 405명의 노숙자를 수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식사와 잠자리, 의료 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며, 市의 노숙자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임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市와 카운티의 보건·인적 서비스국,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의료, 정신건강 관리, 고용과 약물남용 회복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1,600시간 이상 제공하게 된다. 또한, 市와 미국 주택도시개발국, 캘리포니아州, 市주택위원회가 쉼터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www.sannet.gov/press/031211.shtml](http://www.sannet.gov/press/031211.shtml))

### 로봇 기술을 응용한 장애인·고령자용 복지기기 연구개발 지원 (동경)

일본 東京都 심신장애자복지센터와 와세다대학은 최근 ‘복지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와세다대학은 ‘초고령사회에서 사람과 로봇 기술의 공생’을 연구중인데, 대학이 보유하는 로봇 기술 등 최첨단기술을 응용하여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기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와세다대학 오쿠보 캠퍼스에 인접한 東京都 심신장애자복지센터는 지금까지 장애인 판정 등을 통해 축적해온 복지기기 이용자의 소요 정보와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내용으로는 첫째, 로봇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보행지원기기 개발, 둘째, 장애인·고령자의 생활과 활동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히는 전동(電動) 휠체어의 경량화를 위한 연료전지 개발, 셋째, 점자, 촉지도(觸知圖)의 개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3/12/20dcm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3/12/20dcm400.htm))

### 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 (미시건州: 렌싱市)

미국 미시건州는 최근 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Andy's Law」라는 도로공사구간 안전 확보 및 사고 발생시 처벌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과속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공사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도로공사구간의 명확한 표시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또한, 도로공사 작업자 관련 사고 발생시 처벌 가능한 운전자의 과실을 기존의 음주 및 난폭 운전 뿐만 아니라 과속 및 부주의 운전까지 포함한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강화된 법안의 제정을 통해 도로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州의회에 승인을 거쳤으며, 현재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다.

([www.freep.com/news/driving/helms18\\_20031218.htm](http://www.freep.com/news/driving/helms18_20031218.htm))